



12면

조선왕조실록이안과정 보존작업 착수

전주매일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음 10월 28일) 제29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탄소중립 실현 '한목소리'

'2050 선진화 포럼' 개최

지자체장·분야별 민간 대표
"나부터 적극 나설 것" 다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지금 바로 '나부터 적극 나설 것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장·군수와 산업 및 수송 등 분야별 민간 대표들이 탄소중립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동참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이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군수, 분야별 민간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50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현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가 이상고온과 폭우 및 한파 등 각종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이 서로 고민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의미가 컸다.

이날 포럼은 정부와 전북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등 주제 발표, 도 및 14개 시·군과 민간 대표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선언식, 2050 탄소중립 실현 퍼포먼스, 전문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한 가운데,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박사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을, 전북연구원 강남정 박사가 '전북도 탄소중립 기반방향'에 대해, 녹색전환연구소 이윤진 부소장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선언식'에는 송하진 도지사과 14개 시장·군수, 산업 및 수송, 농정, 건물, 시민단체 등 민간 대표가 참석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확대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일상 속 생활 실천에 지금 바로 '나부터' 적극 동참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진행된 2050 탄소중립 실현 퍼

포먼스는 기후위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앞으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세, 도약, 포용의 3대 정책 전략과 9개 과제가 하나씩 완성되면서 최종적으로 전북도의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모습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은 주제 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전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과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의 정책 제안,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공유 등을 함께 토론했다.

한편 이번 포럼 개최에 앞서 지구의 건강회복 탄소중립,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라는 주제로 11월 한달간 진행된 온라인 도민소통 사전행사에서는 도민들의 정책제안과 생활실천 운동 공유 등이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더 깊고 더 넓은 탄소중립 실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정확하게 방향을 전환해 기후변화대응과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와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황영석 도의회 부의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인원만 참여해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73억5,000만원으로 비대면 모금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나눔, 모두를 위한 '희망백신'

사랑의 열매, 희망2022 나눔캠페인 출범
내년 1월까지... 모금 목표액 73억5000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전북도와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황영석 도의회 부의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인원만 참여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사랑의 열매 전달식, ▲

행), ▲2022년 배분사업 지원금 전달식(전북도사회복지협의회 466개소),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 100도 달성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캠페인 표어(슬로건)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위기를 나눔을 통해 극복하고,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73억5,000만원이며,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기부방식을 도입해 비대면 모금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추사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 힘든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눔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전북도는 나눔과 희망의 지리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춥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있다"라며 "올해도 나눔 온도 100도를 꼭 달성해서 사랑의 열매가 도내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ARS(060-700-0806)를 통해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자연유산 되다

역사문화경관적 가치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고창 병바위 일원'이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바위로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名勝)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창 병바위 일원'은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에 위치하며, 병바위, 소반바위, 두락암(전좌암), 두암초당 등 일대를 아우른다.

병바위는 높이 35m 정도의 크기로 1억5000만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풍화되며 생겨난 얼어진 호리병 또는 사람 얼굴 모양 등으로 보이는 독특한 생김새의 바위다.

이와 관련된 전설은 '선동마을 뒤 선인봉 반암 뒤 잔칫집에서 몹시 취한 신선(神仙)이 쓰러지면서 소반(小盤, 작은 밥상)을 걸쳐차자 소반 위 술병이 굴러 떨어져 인천강가에 거꾸로 꽂힌 것이 병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온다.

또 이곳은 주변의 여러 바위와 함께 금반옥호(金盤玉壺) 또는 선인취(仙人醉)라 하여 명당으로 알려져 많은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특히 병바위는 소반바위, 두락암(전좌바위) 등 주변과도 잘 어울려 경관적 가치가 크고, 바위 주변 두암초당에서의 강학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함께 조선 후기 이후의 다양한 시·글·그림으로도 오랜 기간 지역의 명승이 되어 역사문화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고창 병바위 일원'은 경관적으로 병바위, 두락암, 두암초당 등의 인상적 이면서 흥미로운 조망대상이면서 동시에 주변 지역을 내려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장소로서 가치도 탁월하여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에 이어 2번째로 지정되는 명승이다.

특히 명승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다른 문화재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도 120여기만 지정된 희소성의 가치와 관광 효과가 매우 크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제5회 전라북도 아리를 어버이 합창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함께 웃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